

12월 시

확인 ☆ ☆ ☆ ☆

13. 2024.12.16.월. 15:00까지	14. 2024.12.16.월. 15:00까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눈 위에 쓴 시 류시화</p> <p>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취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</p> <p>나는 십이월의 눈 위에 시를 쓴다. 눈이 녹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</p> <p>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</p> <p>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</p>
15. 2024.12.16.월. 15:00까지	16. 2024.12.16.월. 15:00까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꽃 김춘수</p> <p>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.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.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.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</p> <p>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흘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</p> <p>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</p>